

화학산업 키워드 “성장성 부진”

개발 및 고가관리 통한 내부적 성장 ...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

미국 화학산업이 2002년의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면서 관련 CEO 및 간부들은 기업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Dow Chemical은 2002년 12월 재무구조 개선 요구를 거세게 받아 실행(Execution)과 성장이 2003년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르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팽배해 있고 코스트 절감 움직임이 꾸준한 가운데 인수합병(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자 개발 및 신규고객 창출을 통한 유기성장(Organic Growth)을 강조하고 있다.

4개 주요 시장분석기업인 Accenture's Chemicals Industry, Ernst & Young, Deloitte Consulting, KPMG는 2002년 화학산업이 전반적인 산업침체와 경기불황으로 고전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PMG는 화학산업의 경기침체 주기가 길어졌고 범용 및 Specialty 모두 수요둔화를 겪었으며 가격이 상승했지만 순전히 원료가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수익향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KPMG는 2002년 경기침체의 가장 큰 특징이 경기순환주기의 연장으로, 1999년 피크를 기록한 이후 정상적인 순환주기라면 2002년 최고점을 지나야 했지만 불황으로 예전의 경기 7년 순환주기가 10년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경기회복은 2004년 이르러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03년에는 수요부진과 에너지 코스트 불확실성으로 수익개선이 불투명하며 2002년 4/4분기 지표가 나오면 2002년 2/4분기에 판매가격 상승이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rnst & Young은 고에너지 비용 및 원료비용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화학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고, Accenture는 원료공급 불안정을 주요 문제로 거론하며 2003년 베네수엘라와 중동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2년 하반기에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있었지만 2003년에는 비관론이 우세해 회복지연 가능성을 내비쳤다.

Deloitte Consulting은 화학기업들이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침체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주력해 힘겨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KPMG는 화학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M&A 규모가 확대됐지만 주가가 EV/EBITDA의 7배에 머물러 저평가 메리트가 Financial Buyer의 M&A를 부추겼지만 경제가 불확실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27>